



광주도시공사 女핸드볼팀 출범

내달 3일 창단식...초대감독 진상태씨 선수 8명 팀 구성

광주도시공사 여자 핸드볼팀(이하 도공 핸드볼팀)이 내달 3일 창단식을 갖고 본격 출범한다. 핸드볼팀 초대 감독에는 국가대표 출신이며 전 광주시청여자핸드볼팀 감독이었던 진상태(53)씨가 임명됐다.

이로써 지난 2004년 광주시청팀 해체 이후 6년만에 광주지역 여자실업핸드볼팀이 다시 창단 돼, 침체되었던 광주핸드볼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공 핸드볼팀은 진 감독과 홍정호 플레잉 코치, 선수 8명을 포함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도공팀은 현재 진행 중인 슈퍼리그에 참가하지 못하고 오는 10월 전국체전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이후 12월부터 열리는 핸드볼 큰잔치에 합류하게 된다.

도공 핸드볼팀은 일단 8명으로 출범하되 올해 말 실업팀과 대학팀에서 우수선수 7명

을 더 보충해 총 15명의 선수로 완벽한 팀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선수들 중 광주·전남 출신은 3명으로, 국가대표 출신 최승기(조대여고 졸업)를 비롯, 강두리·박찬숙(이상 전 부산시청공대·백제여고 졸업)이 고향에서 뛰게됐다.

창단 첫 해인 올해의 운영비로 선수단 버스 구입 등 12억여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며 내년부터는 매년 10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속소는 예전 광주시청 여자핸드볼팀이 이용했던 빙상장 2층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키로 했다.

도공 핸드볼팀은 영주종합체육관과 빙고체육관을 오가며 하루 7시간씩 훈련을 실시하고, 당분간은 문만들기에 주력할 계획이다.

광주 핸드볼협회 관계자는 "여자실업

팀이 재창단 됨으로써 우수선수의 타지역 유출을 막는 한편, 장기적으로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해 광주핸드볼의 위상을 되찾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03년까지 여자 핸드볼 팀을 운영하면서 이미영·성경희·문향자·오영란 등 국가대표를 배출하는 등 명문팀으로 자리잡았으나, 지도자와 감독선임 문제를 둘러싸고 일부 선수들이 반발하는 등 말썽이 일면서 전격 해체됐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실업 여자 핸드볼 팀은 6개 팀이다.

광주도시공사핸드볼 선수단은 다음과 같다.

▲감독=진상태 ▲플레잉코치=홍정호 ▲선수=최승기·임나리·신은화·원종희·권세희·전초령·강두리·권세희.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한일 V리그 톱매치

25일 오후 서울 성동구 행당동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에서 열린 '2010 한일 V리그 톱매치' 남자부 삼성화재와 파나소닉의 경기에서 삼성화재 조승목이 스파이크를 하고 있다. 이날 경기에서 삼성화재가 세트스코어 3-1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광주 핸드볼 명예 되찾겠다”

진상태 광주도시공사 女핸드볼팀 초대감독

“잃어버렸던 광주 여자핸드볼의 명예를 되찾고, 광주가 국내의 대표적인 핸드볼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내달 3일 창단되는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의 첫 지휘봉을 잡게 된 진상태 감독의 취임 소감이다.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옛 광주시청핸드볼팀 감독을 역임했던 진 감독은 “광주시청팀의 화려했던 시절을 광주도시공사의 이름으로 되찾고 싶다. 광주지역 핸드볼의 위상을 회복해 국내 정상권을 유지하는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감독은 옛 광주시청 감독 시절 전국대회 2회 우승과 8번 준우승 등 화려한 성적을 거뒀으며 오영란·우선희·정은희·김진순·김향기 등 훌륭한 국가대표들도 배출시켰다.

“채찍”보다는 “당근”을 중요시하는 덕장인 진 감독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비록 8명의 선수로 출발하지만 급하게 생각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본으로 팀을 이끌어 가겠다”면서 “핸드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담겨있는 선수들이기에 용기를



복돋우면서 서서히 조직력을 키워갈 계획이다”며 선수들 기살리기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광주도시공사 팀은 연말에 대학·실업팀에서 7

명의 선수를 더 보충할 계획이다. 진 감독은 “안락한 팀체제는 연말쯤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대회는 오는 10월 전국체전에 첫 출전하게 되고, 12월부터 열리는 핸드볼 큰잔치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공격적인 팀컬러로 화끈한 경기를 펼치며 광주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팀이 되겠다”며 굳은 결의를 다졌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전남 4연패 끝지 추락 광주 안방 첫 승 불발

프로축구 K-리그 각각 제주·성남에 무릎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가 4연패 끝에 추락했다. 광주 상무의 안방 첫 승 신고도 불발에 그쳤다.

전남 드래곤즈는 25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2010 K-리그 9라운드 대결에서 경기 종료 직전 이삼형이 결승골을 내주며 1-2로 패했다. 마지막 방어에 실패한 전남은 4경기 연속 승점 추가에 실패했다.

제주 원정에서 16경기 연속 승리를 쟁기지 못한 전남은 박상호 감독까지 주심의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을 당하는 등 제주가 악

몽의 땅이 됐다. 전남 양팀의 공방전이 이어졌지만 득점포가 가동되지 않았다.

후반 시작과 함께 제주의 선취골이 나왔다. 전반 5분 제주 이현호가 구자철의 패스를 받아 오른쪽 슈팅을 날려 자신의 프로 데뷔골을 장식했다.

김승현과 고차원을 투입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린 전남은 후반 16분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키커로 나선 김승현이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키면서 경기를 1-1 원점으로 되돌렸다. 하지만 경기 종료로 눈앞에 둔 후반 45분

전남이 페널티킥을 허용했다. 제주 이상협은 팀의 두 번째 골을 성공시켰고, 경기는 1-2 전남의 패배로 끝났다. 1승2무5패의 전남은 최하위로 추락했다.

광주 상무도 24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성남 일화와의 경기에서 0-2로 졌다.

시종일관 성남이 경기를 주도했다. 공격적으로 상무를 공격하던 성남의 첫 골이 전반 7분 터져나왔다. 성남의 용병 라몬치치가 파프리스가 넘겨준 패스를 받아 골에 어이없이 인종에서 왼발 터닝슛을 성공시켰다. 전반 22분에는 성남 장형성이 골키퍼 김지혁을 맞고 나온 공을 쫓아 추가골을 만들었다.

전반에만 두 골을 허용한 상무는 공격의 핵심 최성국마저 성남 수비벽에 막히면서 0-2 패배를 기록했다.

지난주 안방 승부에서 전북에 0-1로 무릎을 꿇었던 상무는 성남에도 밀려 격을 당하며 시즌 홈 첫 승 신고에 실패했다. 이날 패배로 상무는 지난 시즌경기까지 포함해 홈 13경기 연속 무승의 부진에 빠졌다.

2승3무4패의 상무는 9위를 달리고 있다. /김어룡기자 wool@kwangju.co.kr

연예인 축구단 광주서 ‘사랑의 경기’

이수근·이휘재 등 어린이 날 기아차 운동장서

이수근·이휘재가 뛰는 연예인 축구단이 오는 5월5일 광주 기아자동차 운동장에서 자신 축구경기를 펼친다.

이번 행사는 올 1월 창립한 광주 어린이·청소년 축구전문교실 ‘포테FC’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축구 경기 외에도 연예인 사인회·사진 촬영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행사의 입장권

(성인 1인당 1만원, 어린이 무료) 수익금 은 전액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된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포테FC’의 조민성씨는 “주변에 따스한 손길과 관심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적지않은 희망과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아울러 지역축구를 발전과 동호인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대

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에 초청된 연예인팀은 이휘재·이수근을 포함, 박재훈·신정환 등이 활약하고 있는 ‘FC 시스템’ 연예인팀은 2000년대 초 조민성씨의 축구지도도를 받았던 인연으로 이번 행사에 참여키로 결정했다.

이날 경기는 ‘포테FC’의 축구강사와 일반회원들로 구성된 팀과 30분씩 4쿼터로 진행 된다.

‘포테FC’는 어린이 회원 200여명, 청소년 250여명, 성인 50여명으로, 주 4일(월·화·목·토요일)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남성성기능강화제

본 성기능 강화제는 화분, 왕라, 복분자, 구기자, 같은 등 20여 가지의 한약재로 제조하였으며 특히 왕라라는 허브의 일종으로 지방산작용을 하여 다미아나 혈관과 호르몬계의 노음이 된다는 임상실험결과가 있고 단백질 함량을 저감하는 힘을 돕고 근육을 강하게 해준다는 류큐나프린스를 주성분으로 하여 원활히 공급하므로써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화분의 효능이란? 생식세포를 밀하는 것이오 시늘이 가진 영양성분이 집약된 것입니다. 화분속에는 22종의 아미노산, 27종의 무기질, 18가지의 비타민 등 약 185종의 영양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체내에서 합성이 어려워 체외로 부터 섭취해 주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화분속 단백질이 모두 함유하고 있는 풍부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한달 복용으로 1~5일까지 효과를 볼 수 있음

설치방법 및 제품특징

▶평소에 밝기는 되나 자손성이 없거나 추가가 있는분들은 생분해 약사전 전에 1봉을 복용하면 1~5까지도 효과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알기가 전히 안되는 분기부편이 있으신 분들은 1일 1봉을 3~7일 정도 연속으로 복용하신다면 알기가 잘되며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1봉을 800ml 내외 물이나 차에 타서 5분정도 끓이면 90%정도 녹아내리게 됩니다.

※주요인식시책 / 무료 배송
상담주선 010-7770-8138
능현 302-0136-6325-61(권육언)

백/발/백/중/쌍코피

미직수입국품

최신 3종 본제품

- 언제나 볼록 볼록 일어서는 것을 원하십니까?
- 마음먹은 대로 오랜 통-려운 원하십니까?
- 자연산으로 우렁하고 큰 것을 원하십니까?

진시황제가 불노초를 눈 씻고 찾을 때 귀가 뻗백 떠던 그 심정으로 지금 바로 삼당하시면 백발백중 쌍코피가 있습니다.

조잡한 유사품에 피해보는 일이 없이 주의하십시오.

1577-4101, 010-8952-4114
1588-4102, 010-8558-4114
1588-4101, 010-5296-4114

농협 307077-56-075592 전선영
www.오!나경.kr 8기 188 호

탑부동산투자경매

• 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관천동 대림 e-편한세상 124동 맞은편(구 숭원대학 정문 앞)
• 전국 경매 물건 상시 상담 가능. 특히, 서울지역 투자 고객/지너 주거 문제 해결 도우미

직원모집 (경매 유경험자)

대표 전화 0621368-0789 H.P 010-3602-4840

지역	소매지	면적(㎡)	감평가	최저가
광주	소매지	281/108	8천7백	8천1백
	장부동	389/87	4천4백	3천1백
	대산동	387/120	3천7백8십	1천6백5십
	유수동	330/155	1억3천2백	2천2백4십
대구	남산동	681/98	7천2백	5천
	우암동	813/852	6천8백	6천8백
	유림동	646/127	8천4백	5천8백
	지산동	75/70	4천9백	3천2백
부산	지산동	211/118	1억5천2백	1억9백
	계천동	330/235	2억9천3백	1억9천8백
	영봉동	555/108	4천8백2십	3천3백8십
	영봉동	555/108	4천8백2십	3천3백8십
전남	소매지	221/540	2억7천6백	1억9천3백
	우산동	241/221	5억4천9백	3억9천3백
	신기동	212/578	2억1천5백	1억2백
	대우동	201/322	2억4천1백	1억9천8백
전북	소매지	209/370	3억8천6백	2억7천
	금호동	212/878	4억8천8백	2억1천8백
	봉곡동	239/300	6억9천2백	3억7천2백
	봉곡동	542/984	11억3천8백	7억9천8백
충청	계천동	882/984	12억4천3백	8억1천
	계천동	212/944	5억3백	2억9천1백
	계천동	212/944	5억3백	2억9천1백
	계천동	212/944	5억3백	2억9천1백